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 ‘영광군 물무산 행복숲’

# 방문객 3만명 돌파 눈앞

### 개장 2개월 여만...하루 평균 500여 명 방문



영광 물무산 행복숲이 지난 3월 21일 개장한 이래 방문객 3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5월 9일 현재 ‘영광 물무산 행복숲’에 숲속둘레길 16.693명과 집적질척 맨발 황토길 8,327명이 방문하여 누적 방문객 25,020명을 나타냈다.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방문했다. 영광 물무산 행복숲은 다양한 볼

거리가 있는 산림복지 숲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TV와 라디오, 신문 등에 자주 소개되어 방문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10km 길이의 숲속 둘레길은 산 중턱에 개설되어 피톤치드가 많고 계단과 경사가 없는 순환형 숲길로 1시간 30분 코스, 1시간 40분 코스, 2시간 10분 코스로 조성되어 있다. 볼에 이로운 황토를 항상 질척질

척한 상태로 유지하여 재미와 건강을 선사하는 2km 길이의 질척질척한 맨발 황토길은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차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숲길은 일정 거리마다 현지의 특성을 살려서 편백명상원 2개소, 맥문동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소나무숲 예술원, 하늘공원, 가족 명상원, 물놀이장을 배치하여 이용객이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특히, 유아숲 체험원은 날로 짙어 가는 숲속으로 어린이들이 매일 찾아와 숲해설가와 자연에서 맘껏 뛰어놀면서 들려주는 웃음소리가 새소리와 어우러져 방문객에게 치유와 선물을 주고 있다. 치유 전문가들은 웃음소리,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치유인자로 분류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금년에 27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방문객 요구 사항을 담은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은 물론 온 국민이 행복할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 보성군, ‘참다래 인공수분’ 기술지원

### 발화율 검정서비스 추진·물 수분 이용 증류수 무상 공급 등



보성군은 참다래 개화기를 맞아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 기술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참다래는 바람에 의한 자연수분은 거의 되지 않아 반드시 인공수분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비닐하우스나 파종망사설은 인공수분이 더욱 필요하다. 군은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을 위해 참다래 제배 160여 농가가 지난해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꽃가루에 대해 발화율 검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달까지 증점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발아율 활력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방으로 우량 꽃가루를 인공수분용으로 사용하도록 현장지도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 수분시 이용되는 증류

수는 농가에 희망할 경우 매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참다래 물 수분은 증류수 41에 현탁액 200ml, 꽃가루 16g, 색소 0.8g 비율로 혼합하여 믹서로 잘 섞어 압착기 핀 후 3일 이내에 분무하고, 1차 분무 후 2~3일 후 2차 분무를 하면 기존 가루수분에 비해 노동력 절감효과와 수정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인공수분 방법이다. 한편, 보성군은 기후가 따뜻한 조성·특약·회전면 등 남부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29농가가 229ha 면적의 참다래를 재배하여 99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는 등 농가 주요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 장성군, 복지사각지대 없앤 우수 지자체로 선정

장성군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겨울인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으로 정하고 추운 겨울 방치된 이웃이 없도록 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굴기간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실태 등 11개 분야에 대한 평가로

이뤄지고 전국에서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남에서는 장성을 포함한 4개 군이 수상했다. 장성군은 해당 기간동안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 읍면협의체, 이동장 복지도우미 등 374명으로 구성된 인적안정망을 구축하고, 624명의 대상자를 찾아 맞춤형 복지를 지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장성 북일면에서 심정질환을 앓으며 홀로 사는 김모(84세)씨를 도시락 지원사업을 하던 주민이 발견한 경우다. 30년 넘게 가족과 별거상태로 지내던 김모씨는 지난해 9월 북일

면으로 집입해 폐가 수준의 빈집에서 생활해 오고 있었다. 장성군은 김씨에게 동절기 난방 위한 전기매트와 이불, 세탁기 등을 지원하고, 민간 후원 단체와 연계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했다. 또 읍면 맞춤형 복지팀을 주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읍면 협의체 위원, 좋은 이웃들(복지이장 등)의 인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연계, 찾아가는 복지 상담, 인적 안전망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능동적인 복지 정책을 펼쳤다.

## 고흥군, 녹동~제주까지...‘아리온제주호’ 첫 취항

고흥 녹동에서 제주까지 대형 카페리 여객선인 ‘아리온제주호’가 새롭게 취항한다. 기존 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로 연식이 짧고 승객에게 더욱 쾌적한 공간을 선사할 수 있는 대형 카페리 여객선인 아리온제주호로 교체되었다.

6,300인 ‘아리온제주호’는 여객 정원 825명, 적재 차량은 180대까지 가능하다. 최고 속도 24노트로 녹동 간 제주를 3시간 20분 만에 돌고 가능하며 기존의 카페리호에 비해 20분 단축되었다. 주 중 매일 오전 9시에 녹동에서 출항하며, 제주에서는 오후 4

시 30분에 출항하며 주말에는 토요일 같은 시간에 녹동을 출항해 일요일에 회항한다. 더욱 쾌적한 선실과 편의시설 그리고 운항을 통해 전남 고흥에서 제주도까지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구례군, 전 국민 지진 대피훈련 실시

###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 전 국민 참여식 훈련

구례군은 오는 16일 제407차 민방위의 날을 맞이하여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 국민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포항 지진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지진

에 대한 안전의식을 반영하여 전 국민 참여식 훈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경보 사이렌이 2시 정각에 울리면 건물 내 주민은 불건이 떨어져 몸을 다칠 수 있으니 책상과 탁자 아래에 2분간 몸을

피한 후 유도 요원 안내에 따라 계단 등 비상구를 이용하여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구례군청소년수련원에서는 순천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재난관리지원원 응원 협약 민간기업 등 11개 민간단체(기업) 참여한 가운데 지진대피, 화재진압, 응급복구, 구호 등 지진복합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 함평군보건소, 한의약 피부보약교실 운영

### 정상적인 노화과정·피부질환 대해 한의약적 관리 제공



함평군보건소는 오는 6월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한의약 피부보약 교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관리사의 피부 관리 방법, 혈액순환 향상을 위한 운동과 한의약 양생법 등 한의약 교육을 병행해 정상적인 노화와

정과 외부 원인으로 발생하는 피부 질환에 대해 한의약적 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 시작 전 기초검사와 사상체질 검사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개인별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 아로마 테라피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인 피부질환도 중대한 문제이나 그동안 다른 노인질환에 비해 등한시 되어 왔다”며 “피부질환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보건소는 생활터 중심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오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한의약 타이저 운동교실도 오는 7월 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평=김광훈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흥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